

《삼국유사》 소재 향가 향찰자 ‘惡’에 대한 고찰

◆ 한국 성균관대학교 **림성권**(연구생)

[론문요지] 《삼국유사》 소재 향가는 한자를 빌어 조선어를 표기한 향찰가요이다. 본 논문에서는 향찰자 ‘惡’자에 대한 그 음과 훈 및 사용환경의 분석을 통해 향찰자의 해독을 시도하였다. ‘惡’의 사용에서 훈독과 음독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해독이 되는데 훈독의 경우 ‘어찌’의 훈으로 읽히고 음독의 경우 ‘악’으로 말음 ‘ㄱ’을 반영하여 후행요소의 두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구결과 명사와 결합하는 ‘惡’자와 동사와 결합하는 ‘惡’자, 부사의 ‘惡’은 각각 말음첨기, 타동사의 사동표지, 음독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핵심어] 향가, 향찰, ‘惡’자, 훈독, 음독

1. 머리말

《삼국유사》 소재 향가(이하 ‘유사가’로 표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시작된 지 100년이 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유사가’의 표기로 고대조선어의 형태를 재구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이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처음 ‘유사가’와 《균여전》 향가(이하 ‘균여가’로 표기)에 소재된 향가 25수를 해독한 오구라 심빼이(1927년), 한국어 화자 최초로 ‘유사가’와 ‘균여가’ 모두를 해독한 양주동(1942년), 향가해독에 기준을 제시하고 언어학적 기준에 의한 해독을 진행한 김완진(1980년) 그리고 ‘유사가’와 ‘균여가’에 대해 전문적으로

해독을 진행한 선행연구가 총 12편에 달하고 개별 향가에 대한 논문은 수백편에 달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유사가’에 나타난 한자 ‘惡’에 대해 고찰을 진행하고 해당 글자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사용형태를 음운론적으로 살펴보면서 15세기에 이르기까지의 한자 ‘惡’의 변화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우선 ‘유사가’에 ‘惡’이 출현하는 구절을 향가와 함께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ㄱ. 逢鳥支惡知作乎下是 (<모죽지랑가>, 6련)

마조기 오디 일오아리: 마주하기를 어찌 이를 것인가?

ㄴ.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 (<도솔가>, 2련)

고든 마스미 命 사 시이기: 곧은 마음의 命 시켜.

ㄷ. 逸鳥川理叱磧惡希 (<찬기과랑가>, 6련)

逸鳥나리사 작별아히: 逸鳥내가의 작은 돌에.

ㄹ. 此勝喰惡支治良羅 (<안민가>, 5련)

이흘 습기 다슬아라: 이를 먹여 다스려라.

ㄱ. 國惡支持以支知古如 (<안민가>, 7련)

나라기 디니기 알고다: 나라가 유지됨을 알 것이다.

ㅂ. 國惡太平恨音叱如 (<안민가>, 9련)

나라 太平했다: 나라 태평할 것이다.

ㅅ. 一等下叱放一等勝除惡支 (<도천수대비가>, 6련)

하든햇 노하 하든홀 싸기: 하나를 놓아 하나를 빼어. (필자 역)

위의 레시들은 ‘유사가’의 원문중 한자 ‘惡’의 출현환경이다. 그중 <안민가>와 <도천수대비가>에서 ‘惡支’라는 형태가 총 3차례 나타나고 있다. ‘支’자와 ‘攴’자에 대한 논의는 선행연구에서 여러 차례 진행되었는데 향가연구 초기에는 동일자로 인식되다가 김완진(1980년)에서는 “‘支’자는 앞의 어휘가 혼독됨을 지시하는 지정문자.”라고 하였고 양희철(1990년)에서는 “‘支’자는 ‘복’에서 온 ‘ㅂ’을 위한 음차자.”라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支’와 ‘攴’의 구분에 대해 박재민(2013년)에서는 두 글자가 혼용되는 글자임을 지적하면서 ‘支行齊 / 攴行齊’, ‘以支 / 以攴’ 및 <제망매가>와 <찬기과랑가>의 ‘枝’의 이형태를 제시하여 실제 나타나는 글자의 형태를 통해 두 글자가 동일자임을 증명하였다. ‘支’와 ‘攴’은 형태가 비슷하므로 혼용될 가능성이 크고 전사과정에 혼기(混記, 혼동되게 쓰임)되어 전승되었을 가능성 또한 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이 두 글자는 동일자 즉 ‘支’이 ‘攴’의 이형태인 것으로 보고 서술을 진행할 것이다.

2. ‘惡’의 음과 훈

김완진(1980년)에서는 향가해독의 방법으로 ‘훈주음종(訓主音從)’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향가표기법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으로 형태의 머리 즉 선행요소는 훈차로 하고 끝부분을 음차로 하는 방식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각 련에서 나타나는 핵심 한자어 즉 관념어¹⁾를 설정하여 한자어 ‘惡’이 사용되는 언어환경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레시 (1)과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유사가’의 련 중 출현한 ‘惡’자를 모두 음독으로 처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惡’자가 음독으로 사용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금석문자료와 목간자료²⁾에서 그 사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비추어볼 때 이는 중고한음으로 읽혔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惡’³⁾자의 중고음(《廣韻》)과 그 의미를 제시해본다면 아래와 같다.

(2)

○ 惡: 哀都切 / 烏各切 / 烏路切, / ?uo /: 平

● 惡:

① 如何, 怎么. (어찌)

ㄱ. 棄父之命, 惡用子矣. (《左傳·桓公十六年》)

아버지의 명을 어기는 자를 어찌 자식이라 하겠는가.

ㄴ. 然以吾之愚, 而獨好汝, 汝惡得避是名耶. (《愚溪對》, 柳宗元)

나의 어리석음에 너만 좋아하니 어찌 너의 이름 때문에 피하겠는가.

ㄷ. 久假而不歸, 惡知其非有也. (《孟子·盡心》, 上)

1) 관념어에 대한 논의는 황폐강(2001년)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그가 제시한 관념어로 해독을 시도한 작품은 <원왕생가>와 <풍요> 두 작품뿐이지만 한자어를 향가표기법에서 분리하여 해독을 시도한 것은 김완진(1980년)에서 제시한 향가해독의 원리중 ‘훈주음종’의 원리와 비슷한 면을 지닌다.

2) 금석문자료와 목간자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에서 신라시대 금석문과 경주지역 목간자료의 용례를 수집하였다.

3) <https://www.zdic.net/hans/惡>, 漢典.

오랜 휴가에도 돌아오지 않으니 어찌 있는 것을 알겠는가.

○ 惡: 烏路切 / 哀都切 / 烏各切, / ?uo /: 去

● 惡:

② 憎恨, 讨厌. (증오하다, 미워하다)

ㄱ. 唯仁者, 能好人, 能惡人. (《論語·里仁》)

오직 인의를 지닌 자만이 사람을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 있다.

ㄴ. 世情惡衰歇, 萬事隨轉燭. (《佳人詩》, 杜甫)

세상의 악이 쇠퇴하면 만사가 초불로 바뀐다.

③ 害怕, 畏懼.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ㄱ. 使人不衣不食, 而不飢不寒, 又不惡死, 則無事上之意. (《韓非子·八說》)

사람에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배고픔과 추위가 없고 죽음을 싫어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④ 毀謗, 中傷. (비방하다, 중상하다)

ㄱ. 兩人相妒, 厥姬乃惡徐來於太子. (《漢書·卷四十四·衡山王劉賜傳》)

두사람이 서로 질투하자 궤희는 태자를 비방했다.

⑤ 羞耻. (수치)

ㄱ. 無羞惡之心, 非人也. (《孟子·公孫丑》, 上)

수치를 모르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ㄴ. 此百世之怨而趙之所羞, 而王弗知惡焉. (《史記·卷七十六·平原君虞卿傳》)

백세의 원은 조씨 때문이고 왕은 수치를 안다.

○ 惡: 烏各切 / 烏故切 / 哀都切, / ?ak /: 入

● 惡:

⑥ 罪过, 不良的行为. (죄가 될 만한 허물, 불량한 행위)

ㄱ. 君子以遏惡揚善, 順天休命. (《易經·大有卦·象曰》)

군자는 죄를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여 하늘

에 순응한다.

ㄴ. 無惡不怨, 無善不顯. (《三國志·卷三五·蜀書·諸葛亮傳》)

죄가 없으면 벌하지 아니하고 선이 없으면 칭찬하지 아니한다.

⑦ 疾病. (질병)

ㄱ. 郇瑕氏土薄水淺, 其惡易覲. (《左傳·成公六年》)

순하씨는 땅이 얇고 물이 얕아 그 병을 쉽게 알기 어렵다.

ㄴ. 郗愔信道甚精勤, 常患腹內惡, 諸醫不可療. (《世說新語·術解》, 劉義慶)

치음은 도가를 깊게 믿어 자주 배가 아팠는데 여러 의원이 치료를 못하였다.

⑧ 污垢, 穢物. (더러운 때, 오물)

ㄱ. 土厚水深, 居之不疾, 有汾澮以流其惡. (《左傳·成公六年》)

땅이 두텁고 물이 깊으니 살기 좋고 늪이 있어 오물을 흘러보냈다.

ㄴ. 凡疔兽瘍, 灌而剮之, 以发其惡, 然后药之养之食之. (《周禮·天官·兽医》)

종기를 치료함에 상처를 가르고 오물을 빼낸 뒤 약을 먹게 하라.

⑨ 糞便. (분변)

ㄱ. 陛下左侧谗人众多, 如是青蝇惡矣. (《漢書·卷六三·武五子傳·昌邑哀王刘髡傳》)

폐하의 옆에 아첨하는 무리가 많으니 파리똥과 같다.

이상의 레시에서 나타나듯이 한자어 ‘惡’은 두 개의 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惡’이 사용환경에 따라 두가지 형태로 발음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惡’의 성모는 두 음에서 모두 영모(影母) /ʔ/로 나타나고 운모는 각각 ‘우섭, 탕섭’(遇攝/ø/, 宕攝/-ŋ/)으로 된다.

3. ‘惡’의 출현환경과 해독

‘惡’의 선행요소와 후행요소를 모두 포함한 형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 ㄱ. 惡知 (<모죽지랑가>, 6련)
- ㄴ. 使以惡只 (<도술가>, 2련)
- ㄷ. 積惡希 (<찬기과랑가>, 6련)
- ㄹ. 喰惡支 (<안민가>, 5련)
- ㅁ. 國惡支 (<안민가>, 7련)
- ㅂ. 國惡 (<안민가>, 9련)
- ㅅ. 除惡支 (<도천수대비가>, 6련)

이에 근거하여 ‘惡’의 출현환경을 나누어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4)

- ㄱ. 명사+‘惡’: ㅂ.
- ㄴ. 명사+‘惡’+(): ㄷ, ㅁ.
- ㄷ. 동사+‘惡’+(): ㄴ, ㄹ, ㅅ.
- ㄹ. ‘惡’+(): ㄱ.

3.1 명사+‘惡’: ㅂ. 國惡

선행연구에서의 ‘國惡’에 대한 해독을 보면 ‘國’을 훈독으로 보고 ‘惡’이 말음첨기를 나타내는 형태소의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國’이 중세조선어의 형태로 ‘나라ㅎ’인 ‘ㅎ중성체언’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거나 ‘-과’, ‘-도’와 결합할 때 말음 ‘ㅎ’이 나타나고 단독으로 사용될 때에는 ‘나라’의 형태로 나타난다.

(5)

- ㄱ. 國은 나라히라 (《훈민정음언해》, 1ㄱ)
- ㄴ. 여러 王들히 부텨기 나사가 無上道理를 묻
좁고 도흔 나라과 宮殿과 臣下와 고마를 버리고 머
리 가짜 法服을 니브리도 보며 (《석보상절》, 13:20
ㄱ)
- ㄷ. 그 부텨 나라토 쏘 이 곧ㅎ리라 (《월인석
보》, 12:13ㄱ)

ㄹ. 즉자히 짜해서 兵甲이 나거늘 四兵 ㄹ초아
드리고 그 나라 티라 가더니 (《석보상절》, 24:12ㄱ)

그러나 상술한 ‘惡’은 ‘宕攝’에 속하며 그 말음은 ‘-k’로 나타나기 때문에 ‘國惡’은 응당 ‘나락’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부터 ‘國’은 ‘나락’으로부터 ‘나랏’까지의 변화추이를 상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음 ‘ㄱ’에서 ‘ㅎ’으로의 변화를 설명해두어야 한다.

이에 대해 송기중(1995년)에서는 “후두음과 연구개음은 조음기관 사이에 근접하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중국 절운음의 후두음(아음)중 과렬음 ‘k- / k’- / g-’은 원칙적으로 국어음의 ‘ㄱ-’과 대응되지만 일부 한자음에서 ‘ㅎ-’과 대응된다. … 국어 자음체계에서 유기 / 무기 대립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열에 따라 선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치음의 유-무기 대립이 절운음과 국어음간에 대부분 일치하는 사실은 유-무기 구분이 존재하는 중국어음이 도입되었을 때 이미 국어의 치음계열에 유 / 무기 구분이 어느 정도 발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 설음 / 순음 / 치음이 유기와 무기로 분화할 때 아음의 유기음 자리는 후음이 차지함으로써 아음은 분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듯하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기문(1972년), 광충구(1997년)에서는 어말 ‘ㄱ > ㅎ’의 변화에 대하여 “고대조선어의 어말 자음은 외과음이었던 것으로 추정하며 미과화의 과정은 기나긴 시기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다량의 기류가 성문에서 빠져나오고 연구개를 지날 때 막고 있던 설음도 간극을 내주는 동시에 폐쇄음은 마찰음으로 조음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어말 자음의 외과에 영향을 주는 것은 ‘ㅎ’이 존재하기에 가능하였는데 이는 ‘ㄱ’과 ‘ㅎ’의 혼용이 고대조선어에서 일어나던 음운현상인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분화가 진행되었고 훈민정음창제 초기의 문헌에서는 ‘ㄱ’ 또는 ‘ㅎ’으로 확실하게 표기되었다. 따라서 ‘國惡’은 ‘나락’으로 보고 ‘惡’은 명

사와의 결합에서 말음첨기를 반영한 표기형식으로 파악한다.

3.2 명사+‘惡’+(): 𪛗. 磧惡希 𪛗. 國惡支

‘國惡支’와 ‘國惡’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일부는 이 둘을 같은 형태로 보는 경우가 있는 반면 ‘支’를 기타 문법형태소로 보는 경우가 있다. ‘支’를 문법형태소로 본 해독에는 강세의 조사 ‘옷’(지현영, 1947년), 주격조사 ‘히’(서재극, 1975년; 류철, 2003년) 등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支’가 문법형태소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支’의 중고음과 상고음을 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 支: MC, 廣韻, 章移切, /tɕje/

○ 支: AC, /tɕie/(王力), /krjig/(李方桂)⁴⁾, /ke/(Baxter), /kje/(鄭張尙芳)

‘支’의 성모는 중고음으로 조모(照母)이고 상고음으로는 지모(知母) 또는 견모(見母)로 나타난다. ‘支’가 목간이나 금석문에서 나타나는 글자임을 감안할 때 고대조선어에서는 이를 ‘기’ 또는 ‘지’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완진(1980년)에서는 “‘支’자의 두 음(頭音)이 어떤 음소였는지 앞으로 더욱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중세어와의 대응관계로는 ‘ㅎ’이나 ‘ㄱ’에 대응되는 존재이고 모음은 ‘이’일 것이 분명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창균(1994년)에서는 “‘支’는 항상 어말에 나타난다는 점으로 보아 성모는 유성음이었을 것으로 보고 ‘gi’로 추정한다.”라고 하면서 이를 ‘기’로 파악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支’는 한자음이 조선반도로 류입될 당시 ‘기’로 읽혔을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國惡支’는 ‘나라기- + -기’(나라 + 이)의 형태 즉 ‘나라기’로 해독된다.

다음으로 ‘나라기’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4) 왕력(王力)과 리방계(李方桂)의 재구음은 ‘小学堂’(https://xiaoxue.iis.sinica.edu.tw)에 제시된 형태를 따른다.

한다. 앞서 선행연구에서는 ‘支’의 문법형태소를 강세와 주격의 의미로 파악하였으나 후행하는 ‘持以支’와 연결될 경우 그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

이에 관해 유창균(1994년)에서는 ‘-이’를 목적격조사⁵⁾로 파악하여 현대어 ‘나라를’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필자도 이 의견에 동의하고 당시 향가를 기술함에 있어서 선행어의 말음을 후행어의 두 음에 반영시켜 표기하는 표기체계가 엄밀히 준수되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國惡支’는 ‘나라기’(나라 + -이)로 보고 그 의미를 ‘나라를’로 보고자 한다.

‘磧惡希’에 대한 해독은 ‘磧’의 훈에 대한 해독과 ‘惡’의 위치에 따라 이를 어미로 볼 것인지 조사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磧’의 훈에 대한 해독으로 ‘작벼리’, ‘적벽’, ‘즈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磧’의 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6)

磧, 水渚有石者. (《说文解字》, 许慎)

물이 고인 곳의 돌.

磧, 水中沙也. (《三苍》)

물속의 모래.

磧, 작벼리 적 水渚有石 又虜中沙漠. (《훈몽자회》, 상:2)

물이 고인 곳의 돌 또는 변방의 사막

磧, 작별 적. (《왜어류해》, 상:8)

‘磧’은 ‘물속에 있는 모래 또는 작은 돌’이다. 또한 한자 ‘磧’에 대하여 ‘작벼리, 작별’이라고 명확하게 표기한만큼 훈독에 대해 이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양주동(1965년)에서는 ‘惡’의 음절 말음 ‘ㄱ’을 의식하여 ‘磧’을 ‘적벽’으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자갈, 조약돌’의 옛말이다.

(7)

저며 아로미 업서 훈 다섯 적벽을 가져 물 안

5) 유창균, 《향가비해》, 형설출판사, 1994년, 388페이지.
《李朝語辭典》에는 ‘-이’가 연결된 형태로써 목적어에 쓰인 레를 들고 ‘-이’를 ‘을’로 새기고 있다.
-이[토] -을
또 煩惱 내요미 불허리라 (《蒙法》, 16)
간대로 사롬 십규미 불허리니 (《法華》, 四:86)
아드리 주구므로 아미를 救하느니 孝子 주구미 불허리라 훈대 (《三綱孝》, 20)

해 드리터 믈을 닐어 소리롤 짓고 (《풍엄경언해》, 5:72)

그러나 ‘지벽’을 곧 ‘작벼리’ 또는 ‘작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磧’은 ‘물속’에만 존재하는 작은 돌에 대한 지칭이지만 ‘지벽’은 ‘자갈’⁶⁾의 옛말로 이들을 완전한 동의어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磧惡希’를 ‘磧 + 惡希’의 형태로 보고 ‘磧’을 ‘작벼리 / 작별’로 보며 ‘惡希’를 조사로 보고저 한다.

선행연구에서 ‘惡希’를 처격조사로 보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유창균(1994년)에서 “惡希’는 ‘也中’의 이형태로 보아 ‘也中’이 ‘여기’인데 대해 ‘惡希’는 ‘아기’일 것”으로 말하고 있다.

황선엽(2010년)⁷⁾에서는 ‘惡希’에 대해 “첫째, ‘악희’로 읽히기에 불완전하게 ‘아희’를 적은 것이라는 견해. 둘째, ‘惡’이 이 시기에 ‘아’로 읽힐 수도 있다는 견해. 셋째, 이 시기 ‘惡’의 발음이 약화되어 ‘ㅎ’으로 실현되는바 ‘惡希’는 ‘ㅎ’이 중철된 표기라는 견해.”와 같은 세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박진호(2007년)⁸⁾에서는 석독구결의 처격조사 ‘-아기’와 련관하여 향가에도 처격조사의 여러 형태가 나타난다고 보며 “‘良中’, ‘惡中’의 약화형이 ‘-아희 / 아희(惡希, 阿希)’, ‘-아의 / 아희(良衣)’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希’의 중고음과 상고음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希: MC, 廣韻, 香衣切, /xjəi/

○ 希: AC, /hīəi/(王力), /hjəd/(李方桂), /qʰəj/(Baxter), /hlul/(鄭張尙芳)

‘希’의 성모는 상고음의 재구음에서 효모[曉母(x(h))] 또는 영모[影母(? (q))]로 되는데 이들은 모두 후음으로 중고음에서 효모[曉母(x)]로 정착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希’가 ‘히’로 읽힌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앞서 우리는 ‘惡’이 ‘악’으로 읽힌다는 것을 밝힌 바가 있다. 또한 음소 ‘ㄱ’과 ‘ㅎ’이 혼용되는 현상으로 미루어볼 때 ‘惡希’는 ‘악 + 히’로 되겠지만 ‘ㄱ’과 ‘ㅎ’의 분별이 명확하지 않았기에 ‘아희’의 표기로 보인다. 이 밖에 석독구결의 ‘良中’이 ‘아기’로 읽히는 점 역시 ‘中’의 음인 ‘희 / 히’가 상술한 음운현상으로 인해 ‘ㄱ’으로 발음되어 굳어진 것이라 보여진다. 따라서 ‘磧惡希’는 ‘작별아희’(작별 + -악히 > 작별 + -아희)로 해독하고 의미는 ‘작벼리에’로 된다.

3.3 동사+‘惡’+(): ㄴ. 使以惡只 ㄷ. 喰惡支 ㄱ. 除惡支

‘使以惡只’의 ‘使以’는 <도솔가>의 한역시 ‘所使’ 부분으로 향가에서는 ‘惡只’가 덧붙여있다. ‘只’에 관하여 권인한(2018년)⁹⁾에서는 목간에 나타나는 형태분석을 통해 ‘支=只=기’임을 설명한 바가 있다.

○ 支: MC, 廣韻, 章移切, /tje/

○ 只: MC, 廣韻, 章移切, /tje/

본 논문에서는 ‘惡只=惡支’로 보고저 한다.

‘使內’의 독법은 리두의 독법과 관련되는데 리두 ‘使內’는 ‘브리’, ‘브리’, ‘부리’로 읽히고 15세기 문헌에서는 ‘브리-’로 읽히며 현대어로는 ‘부리-’¹⁰⁾이다. ‘使以’에서의 ‘以’에 관해서는 말씀첨기로 보거나 피동접사로 보는 것으로 견해가 갈린다. 다만 필자는 해제의 ‘使’가 ‘부리다’는 의미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김완진(1980년)에서는 “한자로서의 ‘使’자의 의미에 대해 ‘사신(使臣)으로 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동사적인 의미요, 더우기 국어의 ‘브리-’의 의미일 수는 없는 것인데 ‘곧은 마음의 명(命)을 심부름하여’라는 기괴한 리해로 일전(一轉)하였거니와 최근

6) 강이나 바다의 바닥에서 오래동안 깔리고 물에 씻겨 반질반질하게 된 잔돌(네이버사전).

7) 황선엽, <고대국어의 처격 조사>, 《한말연구》 제18호, 한말연구학회, 2006년, 316페이지.

8) 박진호, <향가 해독과 국어 문법사>, 《국어학》 제51호, 국어학회 2007년, 317페이지.

9) 권인한, <신출토 함안 목간에 대한 언어문화사적 연구>, 《목간과 문자》 제21호, 한국목간학회, 2018년, 122페이지.

10) 황폐강(1989년)에서는 ‘히-’로 보고 있다.

에는 심지어 ‘받들어’로까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해당 문맥에서 ‘使以’가 ‘브리’로 읽힐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로써 필자는 선행 연구의 ‘使以惡只’의 해독이 ‘브리-’로 해독된 데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다. 우선 ‘使’의 중고음과 상고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使: MC, 廣韻, 踈士切/踈事切, /ʃi/

○ 使: AC, /ʃiə/(王力), /sljəgx/(李方桂), /srəʔ/(Baxter), /sruiʔ/(鄭張尙芳)

‘使’에 대한 상고음의 재구음에서 말음에 후음 /x, ʔ(ㅎ, ㅎ)/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금석문이나 목간에서도 ‘使’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사용빈도 또한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당시에 중고한음으로 읽히기보다 상고음으로 읽혔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使’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ㄱ. 公子黃愬二庆于楚 楚人召之 使庆乐往 杀之 (《左传·襄公二十三年》) (시키다)

공자 황소가 초나라에 두번 절하자 초나라에서 경락을 불러 죽이게 하였다.

ㄴ. 怀王因使项羽为上将军 当阳君 蒲将军皆属 项羽 (《史记·项羽本纪》) (명령하다)

회왕이 항우를 상장군으로 명하였기에 당양군 포장군은 항우에게 속한다.

ㄷ. 부테 阿難일 시기샤 羅睺羅이 머리 갖기시 니 (《석보상절》, 6:10a) (시키다)

ㄹ. 彩色으로 佛像스 그리스보디 제 ㅎ거나 ㄴ ㅁ 시겨 ㅎ야도 다 ㅎ마 佛道를 일우며 (《석보상절》, 13:52a) (시키다)

ㅁ. 王이 左右 梵志를 브리샤 (《석보상절》, 3:11a) (부리다)

ㅂ. 長者를 브리시니 長者ㅣ 실씨 秦民을 갖기 시니 (《룡비어천가》, 45) (부리다)

레문 (8)로부터 ‘使’는 ‘부리다’는 의미외에 ‘명령하다’, ‘시키다’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제에서 사용된 형태 ‘殷重直心之所使’와 비슷한 형태의 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不得身自由, 皆為心所使. (《風雪中作》, 白居易)

몸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모두 마음이 시킨 것이다.

여기서 ‘心所使’는 ‘마음이 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조선어에서 사용되는 ‘시키다’의 15세기의 형태는 ‘시키다’이다. ‘시키다’의 어휘적 변화는 18~19세기에 과잉 분철한 ‘식이다 / 식히다’의 형태가 출현하는데 이러한 형태는 ‘ㅎ’의 개입으로 나타난 표현이다. ‘시키다’와 관련해서 표기법상 15세기 문헌중에는 형태소 ‘ㅎ’의 개재 여부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는 음운상으로 불안정한 ‘ㅎ’의 영향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와 비슷한 현상으로 현대조선어 ‘두겁 / 두텁’의 15세기 형태 ‘둔겁 / 두텁’이 있다.¹¹⁾ 해당 어휘들은 표면적으로 ‘ㅎ’이 나타나지 않지만 음운에 존재하므로 동사 어간에 후행하는 요소가 격음으로 발음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상고음의 음절말에 존재하던 후음 ‘ㅎ, ㅎ’이 중고음 내지는 15세기 조선어에서 자취를 감춘 원인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위국봉(2011년)¹²⁾에서는 “/h/와 중복 분포를 이루는 /k/는 고대조선어 단계에 변이음중에 마찰음 [x / ɣ]를 가졌다고 보고 형태소 내부의 모음(유음, 반치음 포함)과 모음 사이에 간극 동화로 /k/ > /h/ > /∅/ 해당 자리의 기원음이 /k/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기원형이 [x]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 ‘ㅎ’중성체언의 어말의 /ㅎ/의 음가가 [x]였던 것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x]는 후기 중세조선어 이전 단계에 휴지 앞에서 음성표면 층위에도 나

11) ‘ㄱ’과 ‘ㅎ’의 혼용으로 인해 ‘둔회 > 두퇴’로 나타나고 ‘ㄱ’과 ‘ㅎ’의 혼용에 의해 ‘둔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둔겁-’의 어기 설정을 ‘둔ㅎ’로 본다면 동사에서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 ‘-업-’이 결합한 원형은 ‘두텁’으로 되고 ‘ㅎ’의 존재가 회미해집에 따라 ‘둔겁’으로도 사용되었다고 본다. ‘둔텁-’은 ‘ㄷ’을 중복표기한 것이다.

12) 위국봉, <한국어 /ㅎ/의 통시음운론>,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년.

타나지만 후기 중세조선어 단계에서 탈락의 과정에 있어서 휴지 앞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 간극 동화로 /k/ > /h/의 변화가 일어나는 동시에 어중의 [x]가 [ɣ]로 유성음화한 다음에 선행하는 환경에 따라서 /k/로 보존되거나 /h/로 약화되거나 탈락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즉 어간 표면에 존재하던 말음의 형태는 ‘ㄱ’이 그 원시형이고 ‘惡’의 운모 탕섭(宕攝)의 ‘ㄱ’에서 /k/ > /h/의 과정을 거치며 ‘ㅎ’, 다시 ‘ㅇ’로 변화하여 표면형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후음에 속하는 ‘ㅎ, ㅇ’은 후행요소의 두음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조선어 ‘두껍 / 두텁’이 15세기에 ‘둔겹 / 두텁’으로 표기되었으나 ‘시키다’가 ‘시키다 > 식이다 / 식히다’의 형태를 취한 데에는 15세기 음소 ‘ㄱ’이 발달하지 않았거나 후행요소를 격음화시키는 후음이 변화과정에서 ‘ㅎ’과 가까운 ‘효모(曉母) /x(h)/, 감모(匣母) /ɣ(h)/’보다 ‘ㅇ’와 가까운 ‘영모(影母) /ʔ/, 유모(喻母) /ɣ(j)/, /o/’에 가깝게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使以惡只’를 ‘시이기’ (시이- + -ㄱ- + -기 > 시이- + -ㅇ- + 기 > 시기 > 시키)로 보고 ‘시키’의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喰惡支’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喰 + 惡支’의 형태로 파악하고 ‘喰’에 대한 훈으로 ‘떡(喰을 食으로 파악), 손(喰을 法으로 파악), 괴(喰를 愛로 파악), 조아(食의 높임말), 치(喰를 養으로 파악)’ 등을 제시하고 있다. 훈독에서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喰’자가 자주 사용되지 않은 글자인 것으로 인해 생긴 문제이다. 아래 ‘喰’자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9)

喰 古同 餐, 吃¹³⁾

餐 吞也 《說文解字》

상술한 의미로 볼 때 ‘喰 = 餐 = 呑’으로 ‘삼키

다’를 의미하는데 이는 15세기초 ‘습끼다’의 형태로 나타난다.

(10)

시버 습끼 毒藥에 눌러든 즉재 吐ㅎ느니 《한약구급방》, 하:51ㄴ)

훈민정음 초창기 ‘ㅅ’(사이소리)의 이형태로 ‘ㅎ’이 존재하였고 평음 ‘기’가 먼저 ‘ㅎ’의 영향으로 격음화가 진행되고 ‘ㅎ > ㅅ’의 형태고체로 경음 ‘끼’로 변화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끼’에서 ‘키’로의 변화과정중 18세기 용례에서 ‘끼’의 형태가 나타난다.

(11)

呑下 습끼다 《방유 술부》, 2ㄱ)

우에서 설명한 ‘시키다’의 경우와 같이 ‘습끼다’의 음운 속에는 격음표지가 숨어있었고 표기법이 통일되지 않은 시기의 발음 그대로 문자를 적는 과정에서 이러한 표기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喰惡支’를 ‘습기’(습- + -ㄱ- + -기 > 습- + -ㅇ- + -기 > 습끼 > 습끼 > 삼키)로 보고 저 한다.

‘除惡支’의 ‘除’는 선행연구에서 ‘除 + 惡支’의 형태로 파악하고 ‘除’에 대한 훈으로 ‘털-, 버리-, 싸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 ‘除’자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저 한다. ‘除’는 명사와 동사, 부사의 용법이 있으나 <도천수대비가>의 문맥으로부터 볼 때 동사로 파악된다.

(12)

ㄱ. ‘除’ ([动])¹⁴⁾

清除, 去掉

없애다, 나누다

ㄴ. 除惡务本. 《尚书·泰誓》

악을 제거하고 근본을 세우다.

ㄷ. 然则将军之仇报, 而燕国见陵之耻除矣. 《战国策·燕策》

13) 魏励, 《中华大字典》, 商务印书馆国际有限公司, 2014年.

14) <https://www.zdic.net/hans/除>, 漢典.

그러면 장군의 원수를 갚고 연나라에서 릉을 보는 치욕을 없앨 것이다.

ㄷ. 算法有乘除. 《前汉·律历志》

셈법에는 곱셈과 나누셈이 있다.

‘除’의 의미로 볼 때 ‘없애다, 덜다’, ‘나누다, 빼다’로 해석된다. 아래 ‘除’의 의미들의 15세기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자.

① 없애다: 앓-

ㄱ. 文字 츠리며 뜯 퇴호몬 저기 華嚴에 마즈니 어즈러우물 앓고 實을 울여 힘부든 一大事 佛知 見 불교매 잇건마론 내 許티 못호노니. 《법화경언해》, 1:10)

ㄴ. 飛燕의 하리에 니르러 일즉 글월 앓고 므스매 서늘히 너기디 아니호 아나 호노라. 《내훈서》, 3-5)

② 덜다: 덜-, 더-

ㄱ. 닐굽 부터 爲호스바 이 짜해 精습 지서 어느 부터기 恭敬이 덜리잇가. 《월인천강지곡》, 62ㄱ)

ㄴ. 除覺支는 더는 覺支니 煩惱를 다 덜 씨오. 《월인석보》, 2:37ㄴ)

ㄷ. 마순 세차힌 거름거리 더디 아니호시며 《월인석보》, 2:57ㄴ)

③ 나누다: 논호-

ㄱ. ㄹ미 뜨디 漸漸 거즈러 제여곰 바탈 논홀 씨 有德호 사르물 세여 받 논호기를 決게 하니 이 王 始作이라. 《석보상경》, 9:19ㄴ)

ㄴ. 七覺支는 覺애 다든논 이를 닐구베 논호아 닐은 마리니 支는 논홀씨라. 《월인석보》, 2:37ㄱ)

ㄷ. 이제 文이 便安호물 조차 함과 저고물 골오 호야 퇴화 논화 세홀 甞노니. 《원각경인해》 상, 1-2:24ㄱ)

ㄹ. 甞 첫 호 念에 空과 見과 논호디 못호미 일 후미 劫濁이니. 《릉엄경인해》, 9:52ㄴ)

④ 빼다: 싸히-, 썬히-

ㄱ. 天帝釋이 그 사를 싸히 切利天에 가아 塔 일어 供養호습더라. 《석보상경》, 3:14ㄱ)

ㄴ. 그 나뭇 불휘를 싸히 그우리 부러 가지 것 비쳐 《석보상경》, 6:30ㄴ)

동사에 후행하는 ‘惡支’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동사어간과 결합하는 ‘기’로 파악하였고 음소 ‘기’와 ‘ㅎ’이 서로 교체되어 사용됨을 설명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의하면 ‘除惡支’에 해당되는 형태는 ‘싸히-, 썬히-’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싸히-, 썬히-’가 ‘싸히-, 썬히- > 싸혀, 썬혀 > 싸이, 썬이 > 싸’의 변화를 겪은 점에서 ‘除惡支’를 ‘싸기(히)’(싸- + -기- + 기 > 싸- + -ㅎ- + -기 > 싸- + -ㅎ- + -히 > 싸- + -히)로 보고저 한다.

이상으로 동사어간과 결합하는 ‘惡支(只)’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해독의 15세기 형태를 살펴보면 ‘使以惡只: 시이기 - 시기 > 시키’, ‘喰惡支: 습기 - 습끼 > 삼키’, ‘除惡支: 싸기 - 싸히 > 빼’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모두 타동사에 속한다. 따라서 고대조선훈어의 동사어간과 결합하는 ‘惡支’는 타동사의 사동표지라 볼 수 있다.

3.4 ‘惡’() : ㄱ. 惡知

선행연구에서는 ‘惡知’를 앞 어간에 붙여서 어미의 일부로 파악할 것인지, 독립된 부사로 파악할 것인지에 따라 해독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모죽지랑가>에서 ‘惡知’의 위치는 부사의 위치로 판단되고 2장에서 ‘惡’의 의미와 관련하여 부사로 사용되는 ‘惡’에 대해 알아보았다. 따라서 이는 ‘惡’(訓讀)+ ‘知(音讀)’의 형태로 보고저 한다.

○ 知: MC, 廣韻, 陟離切, /tje/

○ 知: AC, /tʰie/(王力), /trig/(李方桂), /tre/(Baxter)

‘知’의 음은 /*데 > 디/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금석문과 목간자료에서 ‘知’자가 출현하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知’는 해당 시기 ‘데’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惡’은 현대조선훈어 ‘어찌’로 그

음은 平聲 ‘?uo’, ‘오’로 ‘惡知’는 ‘오데’로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가’에서 현대조선어 ‘어찌’에 해당하는 형태 ‘何如’(<처용가>, 8련)가 나타난다. 선행연구에서 이와 관련하여 ‘엇디, 언드, 엇데, 어이, 엇다’의 형태로 파악하고 있다. ‘유사가’의 창작 시기로 볼 때 <모죽지랑가>는 효소왕대(697~702년)에 창작되었고 <처용가>는 현강왕대(876년)에 창작되었으므로 그 시기의 차이가 존재하는만큼 부사 ‘어찌’의 훈이 ‘惡’에서 ‘何’로 바뀌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惡知’를 ‘오데’(오디 > 엇디)의 형태로 보고저 한다.

4.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유사가’에 출현하는 한자어 ‘惡’에 대하여 중고음과 상고음에 근거하여 그 용법을 밝히고저 하였다. 본 논문에서 파악한 ‘惡’의 사용례시는 금석문과 목간자료에서 나타나지 않기에 중고음으로부터 파악하였다. ‘惡’은 다음자(多音字)로 평성(平聲) / 거성(去聲), 입성(入聲)으로 출현환경에 따라 그 사용이 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사가’에서 나타나는 ‘惡’자는 네가지로 첫째, 명사 + ‘惡’; 둘째, 명사 + ‘惡’ + 支; 셋째, 동사 + ‘惡’ + 支; 넷째, ‘惡’ + 知의 형태임을 확인하였다.

첫째, 명사 + ‘惡’의 ‘惡’은 명사의 발음을 첨기하는 발음첨기의 요소이다.

둘째, 명사 + ‘惡’ + 支의 ‘惡’은 명사의 발음에 후행하는 문법형태소를 반영한 런철표기이다.

셋째, 동사 + ‘惡’ + 支의 ‘惡’은 ‘支’와 결합하여 타동사의 사동표지를 나타낸다.

넷째, ‘惡’ + 知의 ‘惡’은 부사로 현대조선어의 ‘어찌’의 고대형으로 된다.

본 논문에서 ‘惡’의 음은 ‘악’으로 보았다. 발음첨기의 ‘惡’은 ‘國’과 결합하여 ‘나랏’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15세기 형태 ‘나랏’과 런관되고 발음 ‘ㄱ’

이 ‘ㅎ’으로 변화한 결과로 어간 발음 ‘ㄱ’이 그 원시형이고 음운은 세단계의 변화를 거쳤다고 보았다. 첫째로는 경음화인 ‘ㅅ’으로의 변화 즉 ‘ㄱ’ > ‘ㅎ’ > ‘ㅎ’으로의 변화를 상정할 수 있다(습기 > 습끼). 15세기초 문헌의 사이소리 ‘ㅎ’이 ‘ㅅ’으로 변화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로는 격음화 표지인 ‘ㅎ’으로의 변화 즉 ‘ㄱ’ > ‘ㅎ’으로의 변화로 두 음소의 조음기관이 밀접한 것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나랏 > 나랏, 시이기 > 시기 > 시키). 셋째로 무성음화이다. 이는 ‘ㄱ’ > ‘ㅎ’ > ‘ㅎ’ > ‘ㅇ’의 변화로 ‘ㄱ’이 ‘ㅎ’과 가까운 효모[曉母, /x(h)/], 감모[匣母, /ɣ(h)/]보다 ‘ㅇ’에 가까운 영모[影母(/ʔ/)], 유모[喻母(/ɻ(j)/), (/o/)]에 가깝게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싸기(히) > 싸히 > 빼].

부사어 위치에서의 ‘惡’은 현대조선어 ‘어찌’에 해당하는 훈을 지닌다. 이는 신라 말기에 이르러서 ‘惡’ > ‘何’로 변화하였다.

참고문헌

김정숙, <향가에 나타난 [ㅎ] 발음 연구>, 《어문논집》 제27호, 1987년.

권인한, <6세기 신라 금석문들의 고유명사 표기자 분석>, 《대동문화연구》 제113호, 2021년.

권인한, <신출토 함안 목간에 대한 언어문화사적 연구>, 《목간과 문자》 제21호, 한국목간학회, 2018년.

박성중, <어두자음 /ㄱ/에 대한 한 연구>, 《언어학》 제13권 2호, 1998년.

신승용, </k>/h/변화에 대한 고찰>, 《국어학》 제41호, 2003년.

위국봉, <한국어 /ㅎ/의 통시음운론 —/k>/h/의 변화 과정과 관련하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년.

이진호, <국어 ㅎ-발음 어간의 음운론>, 《국어

- 국문학》 제5호, 2003년.
- 이탁, <향가 신 해독>, 《한글》 제116호, 1956년.
- 이현희, <중세국어 ‘둔갑-’의 형태론>, 《진단학보》 제63권 제63호, 1987년.
-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년.
- 김준영, 《향가문학》, 형설출판사, 1979년.
- 류렬, 《향가 연구》, 박이정출판사, 2003년.
- 박재민, 《신라 향가 변증》, 태학사, 2013년.
- 서재극, 《신라 향가의 어휘 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75년.
- 송기중, <고대국어 한자음에 관련된 몇 가지 관찰>, 한일어학론총: 《남학 이종철선생 회갑기념논집》, 1995년.
- 양주동, 《증정 고가연구》, 일조각, 1965년.
- 유창균, 《향가비해》, 형설출판사, 1994년.
- 이기문,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1991년.
- 이탁, 《국어학논고》, 정음사, 1958년.
- 정렬모, 《향가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65년.
- 지현영, 《향가여요신석》, 정음사, 1947년.
- 홍기문, 《향가해석》, 여강출판사, 1990년.
- 황선엽, 《국어 연결어미의 통시적 연구—한글창제 이전 차자표기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2년.
- 황패강, 《향가문학의 이론과 해석》, 일지사, 2001년.
- 鄭張, 《上古音系》, 上海教育出版社, 2013년.
- 魏勵, 《中华大字典》, 商务印书馆国际有限公司, 2014년.
- Baxter-Sagar, 《OLd Chinese reconstruction》, version 1.1, 2014.
- 小倉進平, 《郷歌及び吏讀の研究》, 京城帝國大學, 1956년.

对于《三國遺事》所载乡歌乡扎字“恶”的考察

韩国成均馆大学校 林成权(研究生)

[论文摘要] 《三國遺事》所载乡歌是借用汉字标记朝鮮固有文字的，独特的标记方式。本文拟通过对乡扎字“恶”的音与训及其使用环境等的分析，对其进行较详细的解读。“恶”字在训读与音读时有不同形式的解读。即训读时其训为“어찌(何)”，音读时其音只代表“악”的收音“ㄱ”，表示先行语末音的“ㄱ(k)”，并对后行语声母产生影响。研究表明，与名词结合的“恶”、与动词结合的“恶”、作为副词的“恶”分别用作末音添记、及物动词的使动标记、音读字等形态。

[关键词] 乡歌；乡扎；“恶”字；训读；音读